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08. 제16권 제2호. pp. 75-100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 Exercise
2008. Vol.16, No.2, pp. 75-100

특수체육학의 정체성 탐색

오광진[1](한국재활복지대학)

《 초록 》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특수체육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체육지도자(특수체육교사와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포함)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 및 탐색한 후, 이를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에 발표된 문헌고찰을 통해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체육 용어는 SPE, APE, APA가 사용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A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수체육이란 신체활동에 있어서 개인차의 규명과 해법에 관한 다학문적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시스템을 증진하는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과 학문적 연구분야이고, 기존의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평생 신체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특수체육을 보는 관점은 신체활동과 서비스의 측면, 전문직의 측면, 그리고 연구 및 지식체계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미국의 특수체육지도자 양성과정은 1997년 전미장애인체육및레크리에이션협회(NCPERID)가 주관이 되어 미국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표준 지식(APENS)을 개발하여 양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특수체육학 정체성은 아직 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특수체육 개념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래에 우리는 특수체육학의 정의를 내릴 때에는 그 나라 특수체육학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연구가 앞으로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요어: 특수체육, 장애인체육, 정체성, 특수체육지도자

1) kunokj11@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4월 12일에 개최된 한국특수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본 연구자가 발표한 '특수체육학의 정체성 탐색'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에서 특수체육[2]이란 용어는 1900년대 초까지 의료체조(Medical Gymnastics), 1930년까지 스포츠로의 전환(Transition to Sports), 1950년까지 교정체육(Corrective Physical Education), 1970년까지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Sherrill, 1993). 또한, 1970년부터 현재까지는 장애인의 평생신체활동(Adapted Physical Activity)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2001년 세계특수체육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에서는 특수체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Adapted Physical Activity로 사용하면서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학령기 및 학교체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장애인의 평생 신체활동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체육학회, 2005). 이 Adapted Physical Activity란 용어는 기존의 학교체육이 수행했던 장애인체육의 범위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장애인의 평생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참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신도 평생 동안 신체활동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특수체육이란 용어는 한국 특수체육학의 고유한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미국 특수체육의 용어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특수체육학의 용어는 1990년 한국특수체육학회가 창립되어 1993년 한국특수체육학회지의 창간호가 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문화관광부, 2007).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1991년 이후의 연구 주제는 대체로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육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장애인 엘리트스포츠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 이후에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 강조되면서 특수체육에서도 통합교육과의 연계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통합체육(Inclusive Physical Education)과 관련된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선 학교 및 장애

---

2) 특수체육과 특수체육학이란 용어가 원래 다르지만, 본 고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의 상황에 따라 특수체육 혹은 특수체육학이란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장애인체육이라는 용어도 특수체육(현재 한국에서는 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라는 용어가 특수체육이란 용어로 번역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음)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인체육 현장에서는 통합체육 관련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특수체육과가 설립된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수체육교실 및 장애인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현장 연구물들을 주로 발표하고 있다. 2004년 아테네 파랄림픽 후부터는 장애인체육의 조직 및 행정 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장애인체육의 조직 및 행정 관련 연구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2005년에는 장애인체육회 설립 문제에 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방안 모색 관련 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다(한국체육학회, 2005). 2008년 현재에는 1988년 서울파랄림픽(Seoul Paralympics)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특수체육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특수체육학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특수체육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수체육학은 지금까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 개념 정의 등에 관하여 학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논쟁이 없었다. 그 동안 한국에서 특수체육 분야는 치료체육 혹은 재활체육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국민체육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체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변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부 정책의 변화도 엿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인, 상호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인식과 시각, 그리고 역할 및 기능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 문제와 지도자 양성문제는 한국특수체육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 요소이며, 미래 한국의 특수체육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특수체육학의 발전과 연관된 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과에서는 특수체육교육과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지침서가 각 대학의 특수체육교육과에 하달되었다. 현재의 지침대로라고 하면,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은 교과목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수강 교과목 역시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많이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수체육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서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으며,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특수체육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체육지도자(특수체육교사와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포함)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 및 탐색한 후, 이를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연구자는 국내·외의 특수체육학 정체성과

관련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점으로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SPE와 APE, 그리고 APA의 개념 고찰

미국에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는 원래 두 가지로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Special Physical Education이며, 다른 하나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다. Texas Woman's University의 프렌치(French) 교수는 1998년 8월 한국체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초청강사로 초대되어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Special Physical Education과 Adapted Physical Education 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Special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체육학을 전공하고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하였다. 이를 최승권(1994)은 미국에서의 Special Physical Education이란 용어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그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병원이나 특수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세 교정 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골볼, 중도(重度) 뇌성마비인들이 하는 보치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용어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고, 장애인을 정상에서 벗어난, 유별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아체육, 노인체육, 임산부체육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Adapted Physical Education 이라는 용어는 체육활동이 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활동은 일반인이 시행하는 운동종목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구에서 휠체어농구가 만들어졌고, 배구에서 좌식배구가 생겨난 것이 그 예라고 하였다. 이 용어는 특별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하나가 된다', '모두', '함께', 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며, 장애요인 때문에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운동종목의 규칙과 기구를 변형하여 일반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Adapted physical education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미국특수체육위원회(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의 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한동기, 2004).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란 일반 체육프로그램의 격렬한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거나 성취감을 얻지 못한 장애아동의 한계, 능력, 흥미에 알맞게 짜여진 발달활동, 게임, 스포츠, 리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다(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 p. 15)." 또한, Winnick(2000)은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은 장애인들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수중운동, 무용, 개인 및 단체게임에서의 기술과 건강체력 및 운동체력, 기본운동기술과 패턴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이다(한동기, 2004).“ 이 외에도 Auxter, Pyfer, 그리고 Huettig(2001)은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하여 체육분야에서 고안된 지도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전개시키고 이행하며, 관찰하는 인문과학임과 동시에 자연과학을 통틀어 일컬으며, 포괄적인 사정을 기초로 건강체력 및 웰리스(Well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경험을 통하여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움직임 교육, 운동발달을 포함한다(한동기, 2004)”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보면 APE 개념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일반체육활동의 내용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변형하여 장애인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체육학으로서의 특수체육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Jansma와 French(1994)는 SPE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SPE는 체육분야의 일반학급 수업 내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영역이다(한동기, 2004).“라고 말하면서 SPE에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 Corrective Physical Education, Developmental Physical Education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SPE를 AP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APE가 SPE보다 광의의 개념이며,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 APE를 선호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예에 비추어 SPE라는 용어는 장애인만이 하는 체육활동으로 그 개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한국특수체육학회에서는 SPE 개념보다는 APE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APE가 SPE, 움직임 교육, 운동발달을 포함하고 있다는 Auxter, Pyfer, 그리고 Huettig(2001)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단, 특수체육교육학과에서 미래 특수체육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특수교육적 접근이 우선 시 될 수 있어 SPE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나, 미래 이들이 특수체육교사로서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현장 지도자로 취업할 경우에는 SPE를 사용하는 특수체육교육과의 용어 역시 APE라는 용어로 대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APE와 SPE의 개념은 2001년 이후에는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APA는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심동적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위한 다학문적 지식으로 특수체육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APA는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 전문성, 연구 및 지식체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Hutzler & Sherrill, 2007).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APA라는 개념이 기존의 학교체육의 한계를 넘어서 장애인

의 평생 신체활동, 혹은 생활체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은 삶의 일부이자 생활 그 자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APA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한국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APA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특수체육(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의 이러한 용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외국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의 세 가지 개념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고민해 보기 위해 본 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특수체육을 정의한 견해는 외국학자들의 이론적 틀을 사용할 것이나 그 내용은 연구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Ⅲ. 특수체육(APA)의 정의 논쟁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용어(SPE, APE, APA) 중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APA를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는 1952년 미국특수체육위원회에서 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면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3년 IFAPA 심포지엄에서 Adapted Physical Activity(APA)[3]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1983년 IFAPA 심포지엄에서는 본격적으로 APA라는 용어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세계특수체육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에서는 드디어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를 Adapted Physical Education 대신 Adapted Physical Activity로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한국체육학회보, 2005). 기존의 학교체육에서 담당하였던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학교체육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장애인들이 평생 동안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게 된 것이고, 장애인들에게는 평생 무엇보다 신체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IFAPA(2004)는 APA가 신체활동에 있어서 개인차의 규명과 해법에 관한 다학문적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APA는 개인차의 수용적인 태도, 능동적인 생활양식과 스포츠로의 접근을 지지하며,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시스템을 증진하는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과 학문적 연구분야라고 규정하면서,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댄스, 창의적 예술, 영양, 의학 및 재활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한다.

---

3) 이 글에서 Adapted Physical Activity(APA)는 문맥에 따라 APE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특수체육학에서는 APA와 APE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념을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체육학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지식체가 있지만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용어, 연구방법, 이론 등을 차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특수체육학이라는 용어는 의학, 운동학, 체육, 특수교육, 치료 분야를 망라하여 차용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수체육학이란 용어는 독자적인 전공영역을 가졌다고 하기보다는 다학문적(Crossdisciplinary) 지식기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Reid & Stanish, 2003). 특수체육학은 이러한 복잡한 학문적 혹은 정치적 구조 속에서 파워와 역량을 찾고 있는 전문성과 교육상황에 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해 왔던 것이다(Cogen, 1953; Devine, 1986; Goode, 1960).

1975년 공법(Public Law) 94-142의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발표되면서 특수체육학 분야에서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APE)과 Adapted Physical Activity(APA)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Broashead, 1981; Sherrill, 1988). 또한 이러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에는 전문성과 지식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Reid & Stanish, 2003).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정체성에 관해 고민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APE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APA는 학교체육을 넘어 장애인의 평생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특수체육이란 용어는 현재 APA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한편, Broadhead(1981), 그리고 Reid와 Stanish(2003)는 특수체육(APA)이란 용어에는 지식체계가 없으며, 특수체육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O'Connor, French, Sherrill와 Babcock(2001)은 특수체육 분야의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교육학 관련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많이 있으며, 특수체육(APA)은 전문성과 지식체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Sherrill(1988)은 특수체육학은 체육학의 하위 학문분야이며, 특수체육의 전문성과 지식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서비스와 관련되며, 윤리가 강조되고, 공식 조직체 속에서 활약하게 된다. 그리고 지식체계는 전문가를 위한 지식추구를 옹호하고 지식기반, 연구방법론, 전문용어 등이 존재하며, 전문성과 지식체계는 바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설명되어야 한다(Reid & Stanish, 2003).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은 특수체육학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논쟁이 없이 전문성과 지식체계로서만 특수체육을 바라본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수체육(APA)이란 전문성과 지식체계이외에도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론적 기반 뿐 아니라 현장실습이라는 측면에서 실습과정의 엄격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의 특수체육(APA)에 대한 접근은 전문성과 지식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칫 특수체육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겉핥기에 불과한 학문적 지식 제공에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러므로 특수체육전문가에게는 어느 한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예컨대, 교육학 전공)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두루 섭렵하는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수체육의 이론 및 현장실습은 어느 하나의 지식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통해 임기응변적 지식 사용과 대처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체육전문가는 특수교육과 체육학뿐만 아니라 여타 학문 분야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특수체육(APA)이란 용어는 장애인체육이란 용어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특수체육과 장애인체육은 그 정의가 다르다. 특수체육(APA)은 유아체육과 노인체육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장애인체육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좀 더 분명히 특수체육(APA)에 대한 정의를 논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특수체육학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특수체육의 개념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체육환경에서 특수체육(APA)이라는 용어는 곧 장애인체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어 미래 특수체육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를 포함하는 문제도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Ⅳ.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보는 관점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재활체육, 체육교사, 대학교수 등, 실제로 많은 특수체육전문가들은 자신의 식견을 바탕으로 특수체육에 대한 정체성을 언급하려고 한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이러한 언급이 그냥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적어도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행 연구 및 문헌을 철저하게 고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미국의 특수체육에 대한 정체성을 참고로 평상시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특수체육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 나름대로의 논리로 피력하고자 한다.

특수체육학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정체성이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특수체육의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하여 Hutzler와 Sherrill(2007)은 특수체육의 정의를 첫째, 신체활동과 관련서비스로서의 특수체육, 둘째,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체육, 셋째, 연구 혹은 지식체계로서의 특수체육을 언급하였다. 특수체육 전공자들에게

는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을 습득해야만 바람직한 특수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과 관련 서비스로서의 특수체육

특수체육의 정의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현재 APA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APA가 특수체육의 개념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으며, 특수체육이라는 용어 속에는 신체활동이 포함됨으로써 낮은 단계의 신체활동(움직임, 이동, 놀이, 소근운동 등)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조직화된 게임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체육의 정의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활동의 개념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특수체육은 신체활동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이라는 의미는 국가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특수체육을 Adapted Sports Science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체육을 포함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운동 행동의 적용을 강조하는 특수체육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은 특수체육의 용어에 첫째,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기회의 창조를 도울 수 있는 지식의 몸체, 둘째, 스포츠나 신체활동에서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는 행동이나 태도, 셋째, 변형의 관습과는 별개로 APA는 전문직(profession), 학문적인 지식체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의미한다(Hutzler & Sherrill, 2007).

그렇다면 여기서 특수체육(APA)이란 용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장애영역, 장애특성, 장애이해뿐만 아니라, 체조, 무용, 움직임, 운동, 스포츠, 게임, 레크리에이션, 체육교육 등을 망라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체육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일본에서는 일선학교와 재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체육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대변하고, 자료제공에 적극 협력하며, 장애인의 상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Hutzler & Sherrill, 2007). 미국에서는 특수체육의 개념을 체육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변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활동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계획, 사정, 교육과정, 코칭, 상담, 평가 등이 망라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Hutzler & Sherrill, 2007). 또한 Reid(2003)는 특수체육에서 신체활동 및 관련서비스에는 역량강화(empowerment)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1989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PA 학술대회에서 “APA는 장애, 건강문제, 노화 등의 제한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과 관심을 강조하는 움직임, 신체활동,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다(Doll-Tepper, Dahms, & von Selzam, 1990)”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특수체육의 정의에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개

념이 광범위하게 적용 및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한 가지 개념에 고정되어 특수체육의 정의를 한정할 때에는 그 개념이 축소되고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특수체육학의 영역이 광범위한 것만큼이나, 그 개념 및 정의 역시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체육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등에서는 특수체육이 전문 직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특수체육을 지도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APA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Hutzler & Sherrill, 2007). 이와 같이 특수체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특수체육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체육의 전문성은 아직 그 목적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앞으로 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장애인들은 사회적 장벽을 줄이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할 때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에 장애 당사자들이 다른 장애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유롭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의 설립 및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츠쿠바 대학(Tsukuba University),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과 볼 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Victoria), 호주의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 영국의 랭커셔 대학(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그리고 독일의 튜빙엔 대학(University of Tubingen) 등이 그것이다(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 2002).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이 비록 일반 전공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 특수체육학의 발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수체육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의 대학입학이 가능할 것이며, 이들이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특수체육(교육)과에서는 일정 비율(입학정원의 약 5% 혹은 10%)의 장애인을 입학시키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특수체육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특수체육의 전문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일반인들이 주류를 형성했던 장애 관련 직업에 미래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전문교육을 받고 장애 관련 직업에 진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활약상이 두드러질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편, 체육학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지에 관한 연구는 Baker와 Wade(1995)가 수

행하였다. 이들은 Flexner(1915)가 Social Work에서 사용했던 6가지 기준, 실질적인 지적 작용, 연구 지식 기반, 실습, 자기-조직화, 의사소통 능력,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자가 특수체육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첫째, 실질적인 지적 작용은 어떤 전공 분야에서 그 전공 분야에 필요한 깊이 있는 지식과 지적 작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학은 전문적인 전공지식을 학습 및 교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지식 기반은 전공영역을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회지, 저널 등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학은 APAQ, Palaestra, 텍스트북, 한국특수체육학회지 등이 있으나, 연구범위는 운동학습, 운동제어, 교육실습, 교사 및 지도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어 다학문으로서 논쟁이 되고 있다(Locke, 1990). 셋째, 실습은 전공영역을 실천할 수 있는 실습내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학은 현장에서 장애아동들의 체육활동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다시 이론화 하여 학문화 과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기-조직화는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학은 세계특수체육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IFAPA), 아시아특수체육학회(Asia Symposium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SAPE), 미국체육학회(America Association on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AAHPERD), 한국특수체육학회(Korean Socie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의사소통 능력은 전공자들이 전공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학은 전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 및 지식을 공유하며, 저널, 전자서비스, 모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 서비스는 사회공헌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있느냐의 문제로서 특수체육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지식이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볼 때, 특수체육학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표준 지식(Adapted Physical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APENS)은 이러한 특수체육의 전문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3. 연구 및 지식체계로서의 특수체육

특수체육이 정체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전문적인 연구 및 지식체계가 있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특수체육은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혹은 스포츠분야에서 신체활동의 발달과 서비스 전달을 지지하는 지식기반을 제공하고 있다(Hutzler & Sherrill, 2007). 특히 Sherril(1995)은 APA를 특별하고 독자적인 학문으로 규정하고,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박사급의 논문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1990년 대 초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학문영역으로 대두하

기 시작하여 타 학문 영역과 지식을 연합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Reid와 Stanish(2003)는 APA는 학문적 요건이 미흡하며, 다학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특수체육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학문이 아니라, 특수교육, 재활, 의학, 체육학 등 타 학문으로부터 APA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특수체육학은 2007년 현재 유럽 30개 이상의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APA Master's Degree)을 개설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특수체육 석사, 박사학위 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Hutzler와 Sherrill, 2007).

그 동안 지식체계로서의 특수체육학 개념은 체육학에서 그 개념을 확장해 왔다(Henry, 1964, 1978; Newell, 1990; Rose, 1986; Spirduso, 1990). Nixon(1967)은 연구 및 지식체계로서의 체육에는 7가지의 지식체계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느냐, 둘째, 하위 전공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통이 있느냐, 셋째, 독특한 이론적 개념 구조가 있느냐, 넷째, 고유성과 임의의 특성이 있느냐, 다섯째, 연구방법과 절차를 인정하느냐, 여섯째, 지식체계와 연구결과를 인정하느냐, 일곱째,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느냐 등이다. 이러한 연구 및 지식체계 기준에 관하여 Sherrill(1988)은 Nixon(1967)의 분류를 인정하였으며, 특히 O'Hanlon과 Wandzilak(1980)은 지식체계가 전문실습을 위한 필요한 지식체를 제공하고, 연구와 전문지식은 지식체계의 핵심으로써 APAQ 학회지는 특수체육학의 연구와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Nixon(1967)은 특수체육학이 독특한 개념구조를 가졌는가라는 우회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Henry(1978)는 특수체육학의 학문적 지식체계는 기술성과 전문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학업적 측면이 있다고 암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Devine(1986)은 특수체육학은 지식체계를 위한 특수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세계특수체육학회(IFAPA)의 특수체육 정의에 따르면, 특수체육(APA) 분야가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지식체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고유한 학문영역이 있다면, 그 학문영역은 어떠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한 어떠한 기준들이 평가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대학의 박사과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은 학문으로서 정당성을 위해 대학교수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특수체육 전문가 양성기관(대학)은 학문적 정당성을 지원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문 영역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장애, 생태학, 역량강화, 자기결정, 신체활동 변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화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체육학을 학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연구물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의 지식들을 기반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노력도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975년 공법(Public Law) 94-142의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의 영향으로 특수체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Sherrill,

1998). 또한 특수체육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축적되었고, 다학문(Crossdisciplinary)으로서의 지식기반 역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DePauw & Sherrill, 1994; Sherrill, 1998). 이러한 특수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에 관하여 Reid와 Stanish(2003)는 첫째, 지식기반, 둘째, 연구방법과 절차, 셋째, 이론, 모델, 패러다임, 넷째, 전문용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수체육학의 전문성과 지식체계는 첫째, 특수체육학의 지식 기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체육학은 바로 APAQ, Palaestra, 임상운동학회지 등에서 학술적 논쟁이 게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체육,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 스포츠의학, 아동발달 등과 같은 독특한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수체육학의 연구방법과 절차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 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Broadhead, 1984), 인터뷰, 시계열 설계, 실험설계, 체력평가, 연구가설, 토론,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수체육학의 이론, 모델, 패러다임은 APAQ에서 학술적 이론, 모델, 패러다임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특수체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 시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수체육학의 이론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차용해 사용하고 있으며(예: 스포츠심리학, 운동학습, 스포츠사회학 등), 모델 역시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된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 Riggen & Ulrich, 199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Martin & Mushett, 1996),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ened action; Kowalski & Rizzo, 1996)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론, 모델, 패러다임을 혼용하여 생태학적 과제 분석(Ecological Task Analysis), 인퓨전 모델(Infusion Model), 적응이론(Adaptation Theory) 등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특수체육에서의 전문용어는 파랄림픽(Paralympics; Evaggekinou & Grekinis, 1998). 골볼(Goalball; Winnick, 1987), 휠체어럭비(Quad rugby; Yilla & Sherrill, 1998)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분은 다른 학문분야의 전문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예: 특수교육학, 체육학, 재활학 등), 특수체육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한국 특수체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은 특수체육의 정의가 미국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시대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름을 인정하여 각 국가에 맞는 특수체육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식 특수체육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 개념을 정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 개념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체육이라는 특수성과 세계적인 인간 모두가 보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특수체육 개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정의하거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래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개념 및 정의는 한국의 특수체육 상황의 변화와 시대상,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및 교육내용을 담아 한국특수체육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Ⅴ. 미국 특수체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과정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특수체육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특수체육학과 관련된 교과내용에 어떠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91년부터 노력하였으며, 특수체육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과 그 분야의 인력양성과 관련된 교과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전공의 정체성은 결국 그 학문의 정의와 지도자 양성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특수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특수체육 전공자조차도 막상 장애인들을 만나 신체활동을 시키게 되면 장애인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장애인을 지도하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로 인해, 특수체육지도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미장애인체육및레크리에이션협회[4](National Consortium for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NCPERID)에서는 1991년부터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엄격한 자격검정 과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해 1995년 미국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표준 지식[5](Adapted Physical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APENS)을 개발해 현재 실시해 오고 있다. NCPERID(1995)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체육지도자 자격증(Certified Adapted Physical Educatior: CAPE) 및 교과목의 필요성

특수체육의 뿌리는 의사들이 손상이나 장애를 교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치료운동(remedial exercise)'으로 규정한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 특수체육 분야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꾀하여 왔다(Davis, 2003). 다시 말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체육에 있어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체육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준비요건들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변화해 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자유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동일한 권리뿐만

4) 이하의 문장에서는 NCPERID로 기술하고자 함.

5) 이하의 문장에서는 APENS로 기술하고자 함.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질 높은 특수체육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전문가가 필요했고,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시대가 장애인의 신체활동 요구와 결부되면서 특수체육 전문지도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91년부터 전미장애인체육및레크리에이션협회는 APENS 개발 작업을 시작해 1995년 특수체육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체육 관련 지식의 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APENS 개발 작업은 국립운동트레이너협회(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 및 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Therapeutic Recreation Society)와 같이 특수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전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교 체육교사들에게 현직연수를 제공하고 있다(Davis, 2003). 2002년 현재 미국의 14,0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는 약 5,2000,000명의 장애아동들이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APENS 개발의 역할은 모든 공립학교에 한 명씩 공인된 특수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5,200,000명의 장애학생들과 직접적인 문제는 각 교육청 내에 임용할만한 자격이 있는 특수체육교사의 부족이다. 경험이나 교육이 많지 않은 일반체육교사들이 장애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특수체육 분야의 자격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수체육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APENS는 특수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개 하위 전공영역을 알아야 한다고 포괄적인 지식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표준 지식의 15개 세부 전공분야는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운동행동(Motor Behavior),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측정 및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역사 및 철학(History and Philosophy), 학습자의 독특한 특성(Unique Attributes of Learners), 교육과정 이론 및 개발(Curriculum Theory and Development), 평가(Assessment), 지도 설계 및 계획(Instructional Design and Planning), 교수법(Teaching), 협의 및 행정지원 개발(Consultation and Staff Development),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윤리학(Ethics),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이다(NCPERID, 1995). 이러한 APENS의 기준들은 특수체육지도자 및 일반체육 지도자들의 공부와 연구, 궁극적으로 자격을 위한 시험에 활용될 수 있다.

2.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표준 지식 개발 과정

APENS 개발 프로젝트는 장애학생의 체육 지도가 유자격 지도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PL 101-476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법령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이 제정된 이후로 체육분야는 다른 재활교육 영역과 달리 “직접서비스(direct-service)”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시 "자격을 검증받은(qualified)"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통해 미국의 장애인체육은 모든 장애학생들이 자유롭고 적절한 신체활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1991년 봄, NCPERID는 특수교육 주정부 담당자(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irectors of Special Education: NASDSE)와 국제특수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와 연합하여 특수교육의 주정부 담당자와 장애인을 위한 지지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특수체육 관련 ‘Action Seminar’를 개최(Davis, 2003)한 바, 당시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첫째, 특수체육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둘째, 장애인들이 적절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셋째,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교사들의 자질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NCPERID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전문적인 기준과 이러한 기준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도록 추천받았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APENS는 장애인들에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자격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1년 여름, NCPERID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기준을 개발할 책임을 결의하였다(NCPERID, 1991).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의장으로 NCPERID 회장을 선임했으며, 국가기준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래서 NCPERID는 미국교육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 OSERS), 개별준비국(Division of Personnel Preparation: DPP)에 1991년 가을 특별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계획서는 1992년 7월에 승인되고 5년 동안 국가기준과 유자격의 체육지도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학생의 체육지도 전문가들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만드는데 재정이 지원되었다. 이것의 목적은 첫째, 특수체육 현장을 위한 국가기준의 개발이고, 둘째, 기준에 따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 개발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 2년 동안 국가 기준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년 차에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직업 분석에 집중하였다. 2년 차에는 이러한 역할과 책임에 기초한 기준 내용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로 수행하였다. 3년 차에는 기준들의 측정을 위해 2,000개 이상의 평가 질문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것이었다. 4년 차에는 평가 항목에 대한 국가 수준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 5년 차에는 제1회 국가자격시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Davis, 2003).

1997년 5월 10일, 최초의 미국 특수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험이 전국 46곳에서 실시되어, 전체 219명의 교사들 중 175명이 시험에 통과하였다. 1997년 7월 16일에는 APENS 프

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버지니아대학에 있는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a Services: OSERS)에서 NCPERID로 변경되었다(Davis, 2003). 이와 같이 미국에서 공인된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특수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의 특수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특수체육지도자가 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지도자의 임무, 역할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찰은 물론, 특수체육지도자가 일선학교와 생활체육현장 및 전문체육현장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체육지도자들이 특수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일반체육지도자들이 특수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이들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식 특수체육지도자의 양성과정을 참고로 하였을 때 과연 한국 실정에 적합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APENS를 참고로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지도자 양성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과 성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Ⅵ.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 탐색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특수체육의 정의를 바르게 알고, 이러한 정의에 필요한 지도자(전문가) 양성과정과, 그러한 지도자 양성과정에는 어떠한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특수체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진지한 논쟁을 해 본적이 없다. 한국 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문을 거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특수체육학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한국 특수체육학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이유는 한국에는 12개의 특수체육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특수체육이 발전했다는 미국에서조차 특수체육과는 없으며, 체육학 관련학과에 2~3명의 특수체육교수진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12개의 특수체육(교육)학과(장애인체육과 포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특수체육학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한국

특수체육학 전공자들은 특수체육학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수체육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 후 한국에서 특수체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다음, 앞으로 한국 특수체육학 전공자들이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에 신중한 성찰 및 반성적 사고를 갖고, 한국특수체육학이 세계 특수체육학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하는 시각에서 글을 쓰고자 한다.

1. 한국에서의 특수체육학 관련 용어 정의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특수체육학의 정의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에서 유래한 '특수체육학'이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전공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 및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과, 그 동안 한국 특수체육학이 외형적인 학술이론과 실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용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특수체육학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한동기, 2004). 또한, '특수교육등에관한법률'이나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관련 법률에 특수체육학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전공자들간에 제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술적 연구범위의 혼란을 야기시켜 특수체육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에서 특수체육학 관련 용어는 1988년 서울파랄림픽 이후 특수체육 관련 책이 발간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곽준기, 김효선 및 우보경(1991)의 정의에 의하면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은 운동기능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하는 넓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4)에서는 "특수체육은 사람들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체육의 한 영역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특수체육 또는 장애인체육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최승권(1994)은 "특수체육(special physical education)은 특수(special)와 체육(physical education)이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special은 normal(일반)의 상대어라고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수체육은 체육의 특별한 분야로서 개인차 혹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체육 프로그램의 수행이 곤란하여 특수한 교육적 장치나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의수, 김광호, 오광진(1996)은 "특수체육은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규정을 개개인에게 적절하도록 변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명재, 김경숙, 장경호 및 최원현(1998)은 "특수체육이란 일반인이 수행하는 체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체육이며, 특수체육은 장애인들에게 일반인이 수행하는 전통적인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과 방법을 변형

하여 실행하는 체육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러한 특수체육의 정의는 대부분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체육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게 변형하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의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승권(1994)의 경우에는 초창기 한국 특수체육을 Special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용인대학교의 특수체육교육과의 경우 특수교사 양성이 목적인 바, 특수교육적 입장에서 특수체육학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에 순수하게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의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특수체육과의 경우에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 혹은 Adapted Physical Activ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특수체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과정 탐색

한국에서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한 때는 1988년 서울 파랄림픽(Paralympics)을 앞두고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과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설립 당시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과의 입학생 수는 40명이었으며,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은 1989년 입학생부터 30%(12명)만이 취득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는 입학정원이 30명으로 줄어들면서 30명 모두에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신대학교는 1994년 특수체육과가 설립되면서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다가 2004년부터 10%(4명)만이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1998년에 특수체육과가 설립되어 40명의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다가 2001년도에 입학정원을 30명으로 줄이면서 30명 모두에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특수체육(교육)과는 다른 대학에서 계속 설립되면서 2008년 현재 12개 대학에서 특수체육 교사 및 지도자(장애인체육지도자 포함)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체육 교사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인력 양성과정 이외에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도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 변경됨)에서는 1991년부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일명 특수체육지도자로 사용하기도 함)를 양성하였다. 이때 배출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922명이었다(최원현, 2003). 그리고 장애인복지진흥회가 2003년부터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에 의뢰해 양성한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에 장애인스포츠론, 건강관리론, 장애인스포츠와 법(장애의 이해) 3개 과목이고, 일반과목은 트레이닝방법론, 운동처방, 코칭론, 종목별 훈련법, 등급분류, 운동상해와 처치 등 6개 과목이며, 연수시간은 60시간이었고, 총 215명의 장애인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였다(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2006). 또한, 2008년 현재 마련 중인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안)은 아직 그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할 때에는 한국의 장애인체육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체육현장에 종

사하는 관계자와 지도자, 그리고 특수체육전문가들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는 앞장에서 언급한 미국의 APENS를 참고로 한국 실정에 맞는 특수체육지도자[6]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하달된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및 교육부고시 신설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침은 특수체육교육과의 신입생들에게 교양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을 많이 수강할 수 없게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입생들에게 이수학점은 기존의 졸업학점(130학점: 학교마다 졸업학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음)과 동일하게 해 놓고 필수 교과목은 엄격히 규정하여 각 학과에서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2009년 신입생들의 교직 교과목(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은 7개 교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수교육 교과목(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 진단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 교육)은 기본 이수 7개 교과목, 21학점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체육 교과목(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시,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 여가레크리에이션)은 7개 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2007). 이 밖에도 교양학점은 20～25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21학점 정도는 전공 선택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때 특수체육교육과의 학생들은 체육학 이론 및 실기과목을 체육관련 다른 전공자들보다 적게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례로 서울시에 위치한 H 대학의 2008년도 특수체육교육과의 교과과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특수체육 관련 이론 교과목은 장애인스포츠론, 장애인코칭론, 장애인체육 진단 및 평가, 장애인트레이닝방법론, 장애인여가레크리에이션, 장애인체육 조직과 행정, 6개 교과목이 있으며, 실기 교과목은 지체장애스포츠, 정신지체스포츠, 시·청각장애스포츠, 장애인운동프로그램론, 장애인스키, 5개 교과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대학생들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필수과목을 많이 수강해야 하는 교육내용이어서 특수체육교육과의 교사양성제도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앞으로 특수체육교육과의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을 가중시켜 특수체육교육과의 정체성을 위협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

6) 원래 특수체육교사는 학교 체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는 장애인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현장에서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이 글에서 특수체육지도자란 특수체육교사와 장애인체육지도사(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특수체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해도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해 주었던 반면, 새로운 지침에서는 반드시 특수체육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수체육교육과에서 교과목 선택의 폭과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5년 대통령령으로 '대학입학정원령(장애인특례입학)'이 법제화되면서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 3월 1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H대학이 경기도 평택에 설립되었다(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 2002). 이 대학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비율이 개교 초기에는 55~60%대 40~45%에서 2008년에는 70%대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학은 초창기 대학의 정체성으로 한 때 내홍(內訌)을 겪기도 하였다. 이 대학의 학과는 현재 12개 학과(교양과 포함)이며, 장애 관련 학과는 4개(재활복지과, 장애유아보육과, 수화통역과, 의료보장구과)로서 장애인계 지도자 양성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8개 학과는 장애인들이 직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로서 장애인의 취업 관련 학과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이 대학은 정체성과 관련된 교수들 간의 갈등이 심했다. 그 이유는 장애관련 학과 4개 분야의 교수들은 장애 특성 및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지도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장애인들에게 미래에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학과(예: 컴퓨터정보보안과, 컴퓨터영상디자인과, 멀티미디어음악과 등) 교수들은 장애학생의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H 대학은 통합교육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장애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장애학생 지도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는 새로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같이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특수교육학적 지식(전공자의 지식을 100%로 보았을 때 체육학 지식을 70%, 장애 특성 및 이해 지식을 30% 습득할 때)을 가능한 빨리 습득한다면 얼마든지 쉽고 알맞게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반교수들도 장애 특성 및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H 대학의 멀티미디어음악과 교수들에게는 멀티미디어음악과 관련된 지식이 70% 정도, 장애 특성 및 이해 지식이 30% 정도 요구(장애학생의 특성 및 이해 정도가 높고 빠를수록 장애학생의 지도에 효과가 좋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홍을 겪었던 H 대학의 교수들의 경우 지금은 6년 동안의 노하우(know-how)가 쌓여 초창기에 장애학생들을 교육할 때 가졌던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어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 지도에 적합한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H 대학의 사례는 만약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분야 지식을 우선적으로 70% 정도 습득한 후 장애 특성 및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지도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미래에 특수체육지도자(특수체육교사 포함)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는 체육학과 관련된 지식이 장애 특성 및 이해와 관련된 지식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이 반영되어야 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Ⅶ. 결론 및 제언

특수체육학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첫째, 특수체육 용어는 SPE, APE, APA가 사용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공식적으로 AP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특수체육이란 신체활동에 있어서 개인차의 규명과 해법에 관한 다학문적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고, 개인차의 수용적인 태도, 능동적인 생활양식과 스포츠의 접근을 지지하며,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시스템을 증진하는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과 학문적 연구분야라고 규정하면서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댄스, 댄스, 창의적 예술, 영양, 의학 및 재활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학교체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장애인의 평생 신체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특수체육을 보는 관점은 신체활동과 서비스의 측면, 전문직의 측면, 그리고 연구 및 지식체계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미국의 특수체육지도자 양성과정은 1997년 전미장애인체육및레크리에이션협회(NCPERID)가 주관이 되어 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15개 교과목과 국가기준(APENS)을 개발하고, 기준에 따른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특수체육학 정체성은 아직 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특수체육 개념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미국의 APENS와는 조금 다른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체육학의 학문적 지식기반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학문분야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Reid & Stnish, 2003). 그러나 다른 학문분야가 또 다른 학문분야의 지식기반, 연구방법과 절차, 이론, 모델, 패러다임, 전문용어 등을 차용해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수체육학만이 고유한 학문영역이 미흡하다고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중요한 것은 특수체육이라는 용어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참고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특수체육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체육학의 정체성 역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수체육학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나라 특수체육학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특수체육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특수체육학은 분명 기초학문은 아니지만, 복합학문 혹은 응용학문으로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래의 특수체육학은 학제 간 연계 전공으로서 첫째, 지식체 형성, 둘째, 연구방법과 절차, 셋째, 이론, 모델, 패러다임의 규명, 넷째, 전문

용어의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id & Stanish, 2003). 또한, 다른 전공과의 연계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특수체육학은 다학문 연구영역(Spirduso, 1990)으로서 위상 정립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찍이 Henry(1964)와 Rose(1986)가 체육학은 학문적 지식체계가 없다고 말한 바를 교훈 삼아, 이들과 같은 반대론자의 논리에 대한 반론 역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체육학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체육학이 학문적 지식체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수체육학 역시 체육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특수체육학은 학문분야로서 엄연히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실체임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독자적인 학문영역 구축을 위해 특수체육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 발표가 앞으로 한국특수체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한국특수체육학의 전망은 밝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2007).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및 교육부고시 신설안 주요내용**(홍보자료).

곽준기, 김효선, 우보경(1991). **특수체육.** 서울: 특수교육.

김의수, 김광호, 오광진(1996). **특수체육 강의노트.** 서울: 무지개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체육백서.**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200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양성 현황**(내부자료).

장명재, 김경숙, 장경호, 최원현(1998). **특수체육.** 서울: 태근문화사.

최승권(1994). **특수체육 강의노트.** 서울: 무지개사.

최원현(2003). 장애인 체육행정의 개혁 방안. **용인대학교 개교 50주년 2003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술세미나 장애인 체육행정의 개선방향 자료집,** 85-102.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2002). **장애인이 있는 참 아름다운 세상.**

한국체육학회(2005). 한국체육학회보(특수체육학의 연구동향). p. 41.

한동기(2004). **특수체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무지개사.

Auxter, D., Pyfer, J., & Huettig, C. (2001). *Principles and method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9th ed.). New York: McGraw-Hill Company.

Baker, J. A. W., & Wade, M. G. (1995). What is a profession? In J. A. W. Baker, & M. G. Wade, *Introduction to kinesiology* (pp. 122-129). Boston, MA: McGraw-Hill.

Broadhead, G. D. (1981). Time passages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 G. A. Brooks (Ed.), *Perspectives on the academic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pp. 234-252). Champaign, IL: Human kinetics.

Broadhead, G. D. (1984). Birth of a journal.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 1-2.

Cogen, M. (1953). Toward a definition of profess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23, 33-50.

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 Guiding principles for adapte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23(4), 15.

Davis(2003). Why become a cape?. *Palaestra, 19*(1) 4-5.

DePauw, K. P., & Sherrill, C. (1994). Adapted physical activity: Present and future. *Physical Education Review,* 17, 6-13.

Devine, B. (1986). Comparativ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A discipline? In M. L. Krotee, & M. Jaeger (Eds.), *Comparativ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Vol. 3, pp. 19-24). Champaign, IL: Human Kinetics.

Doll-Tepper, G., Dahms, C., Doll, B., & von Selzam, H. (Eds.). (1990). *Adapted physical activit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rlin: Springer-Verlag.

Evaggelinou, C., & Grekinis, D. (1998). A survey of spectators at the 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Wheelchair Gam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5, 25-35.

Flexner, A. (1915). Is social work a profession? *School and Society,* 1, 901-911.

Goode, W. (1960).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s: Psycholog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902-914.

Henry, F. M. (1964). Physical education: An academic disciplin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69(7), 32-33.

Henry, F. M. (1978). The academic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Quest,* 29, 13-29.

Hutzler, Y., & Sherrill, C. (2007). Defin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4(1), 1-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04). *By Law.* Online retrievable from http://www.ifapa.biz/imgs/uploads/PDF/IFAPA%20By-Laws.pdf

Jansma, P., & French, R. (1994). *Special physic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Kowalski, E. M., & Rizzo, T. L. (1996). Factors influencing preservice student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3, 180-196.

Locke, L. F. (1990). Why motor learning is ignored: A case of ducks, naughty theories,

and unrequited love. *Quest,* 42, 242-289.

Martin, J. J., & Mushett, C. (1996). Social support mechanism among athletes with disabilitie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3, 74-83.

National Consortium for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991). http://www.uwlax.edu/sah/ncperid.

National Consortium for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995). *Adapted Physical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Newell, K. M. (1990).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ypes, and degree programs. *Quest,* 42, 243-268.

Nixon, J. (1967). The criteria of a discipline. *Quest,* 9, 42-48.

O'Connor, J., French, R., Sherrill, C., & Babcock, G. (2001). Scholarly productivity in adapted physical activity pedagogy: A bibliometric analysi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8, 434-450.

O'Hanlon, J., & Wandzilak, T. (1980). Physical education: A professional field. *Quest,* 32, 52-59.

Reid, G. (2003). Defin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In R. D. Steadward, G. D. Wheeler, & E. J. Watkinson (Eds.), *Adapted physical activity* (pp. 11-25).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Press.

Reid, G., & Stanish, H. (2003). Professional and disciplinary status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20(3), 213-229.

Riggen, K., & Ulrich, D. (1993). The effects of sport participation on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5, 168-178.

Rose, D. A. (1986). Is there a discipline of physical education? *Quest,* 38, 1-21.

Sherrill, C. (1988). Adapted physical education as a specialization. In C. Sherrill (Ed.), *Leadership train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pp. 1-22). Champaign, IL: Human Kinetics.

Sherrill, C. (1993). *Adapted physical activity, recreation, and sport: Cross-disciplinary and lifespan* (4th ed.). Dubuque, IA: WCB/McGraw-Hill.

Sherrill, C. (1995). Adaptation theory: The essence of our profession and discipline. In I. Morisbak & P. E. Jørgensen. (Eds.), *Quality of life through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sport - a lifespan concept. Proceedings of 10th ISAPA, 1995* (pp. 32-44). Oslo & Beitostølen, Norway: ISAPA Organizers.

Sherrill, C. (1998). *Adapted physical activity, recreation, and sport: Cross-disciplinary and*

lifespan (5th ed.). Boston: WCB/McGraw-Hill.

Spirduso, W.W. (1990). Commentary: The Newell epic-A Case for academic sanity. *Quest,* 42, 297-304.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http://www.ed.gov.

Winnick, J. P. (1987). An integration continuum for sport particip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4, 157-161.

Winnick, J. P. (2000).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3r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Yilla, A. B., & Sherill, C. (1998). Validating the Beck Battery of quad rugby skill test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5, 155-167.

논문제출일 : 2008년 4월 25일
게재승인일 : 2008년 월 일

Identity Explora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Kwang-jin Oh[7]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adapted physical education is defined in Korea and America, to include any contents for training adapted physical educators through reviews of previous research, and then to search identit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which fits Korea is actual circumstances. Research method was a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s.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erminolog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uses adapted physical education, special physical education, and adapted physical Activity interchangably. Second, adapted physical activity is cross-discipline approach, professional and academic service delivery emphasizing life-span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ird, viewpoint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is physical activities and services, professional and field of study or discipline. Fourth, training course of American adapted physical educators uses 15 subjects based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APENS) by National Consortium for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NCPERID). Fifth, the identity of Korean adapted physical education has had no identifiable discourse of direction, or terminolog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borrowed from American terminology for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also Korea adapted physical education uses different APENS subjects from American adapted physical education. As a review, we found out Korean adapted physical education should have more discussion for identifying the concepts and identity of Korean adapted physical education for the future.

Key word : Adapted physical education, Special physical education, Adapted physical Activity, Identity, Disabled sports

7) kunokj11@hanmail.net